

I. 느헤미야서의 명칭과 저자

1) 명칭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묶여 있었다. 그 이유로 역대상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의 지속적인 이야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70 인경은 물론, 탈무드, 요세푸스도 한 권으로 취급했다. 본서와 에스라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느 7 장; 스 2 장) 또 특징이 있기에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저자: 느헤미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서 남은 자로 돌아온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일인칭 화법은 주인공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1:1-7:5; 12:27-43; 13:4-31). 본서의 생동감있는 표현과 자세한 통계들은 경험한 본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느헤미야가 성벽완성과 개혁운동을 마무리한 후에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했으리라 본다 (7:5-73; 12:1-26).

3) 저작연대:

Artaxerxes 1 세(주전 464-423)와 다리우스 II세(페르시아), (느 12:22) 통치때 이었다. 에스라는 왕의 제 7 년(스 7:8) 주전 458 년후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였으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느 1:1)의 20 년 주전 445 년에 귀환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 32 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느 13:6) 이는 주전 433 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전 444 년 이후인, 주전 433 년과 424 년 사이였을 것이다.

II. 느헤미야서의 구성

느헤미야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눈다. 성벽재건 (1-7 장)과 신앙개혁운동 (8-13 장)으로 나눈다. 성벽재건은 3 차 귀환의 모습 (1-2 장)과 성벽재건의 역사 (3-7)으로 국가부흥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번째는 신앙 개혁운동으로 언약의 갱신 (8-10 장) 과 개혁운동 (11-13 장)으로 신앙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준다. 느헤미야서는 정치 종교 외교의 입장에서 선민의 성결을 강조한 역사서이다. 물론 무대의 현장은 예루살렘이고 주전 444 년-425 년의 19 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III. 신학적 집필동기와 배경

본서는 3 차 포로귀환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땅에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 차 포로귀환시부터 역사를 에스라서를 이어서 기술하여 후대의 신앙생활에 간증과 지침이

되게 했다. 따라서 1 차 독자들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보인다. 또한 본서가 기록될 때에는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약해지고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때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방위를 하며 민족의 구심점을 가져야 했다.

IV.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그리고 핵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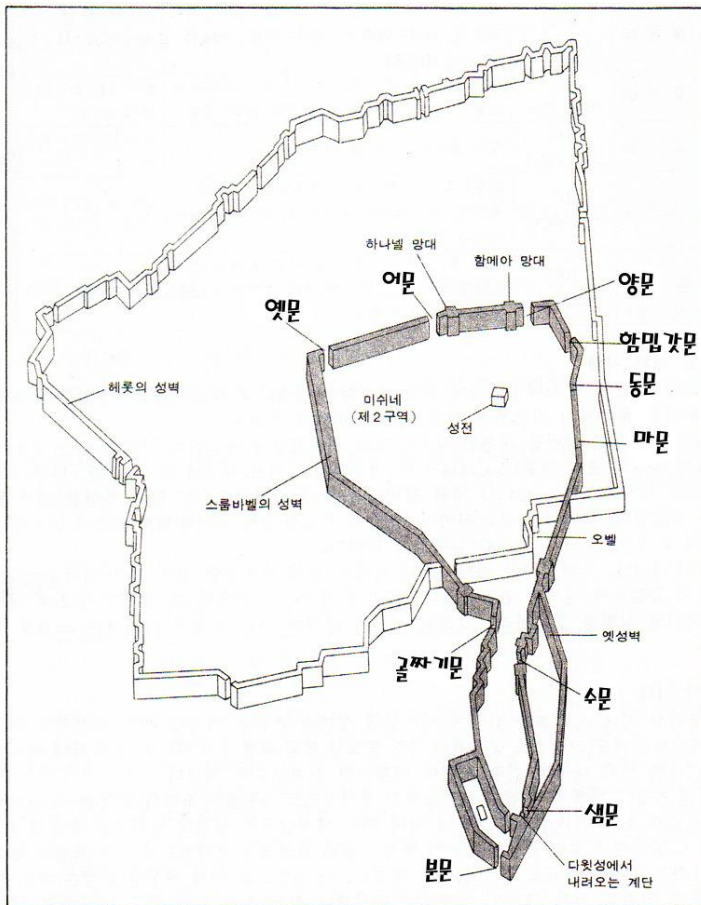
- 1) 핵심 단어 : 성벽 재건
- 2) 핵심 절 : 2:17; 6:15-16
- 3) 핵심 장 : 9 장. 성벽재건의 의미는 신앙공동체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 느헤미야서의 주요 주제들

- 1) 자기부인의 자세: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고관이라는 안락한 지위를 버리고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
- 2) 세상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 이방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본다.
- 3) 신앙재건: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도 온갖 위협과 방해공작이 있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의 비전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 4) 새 언약: 언약의 갱신은 이론의 개혁이 아니다. 실생활의 개혁도 요구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VI.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
- 2) 중보기도자 느헤미야
- 3) 정결케 하는 사람 느헤미야
- 4)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